

# 보성세계차 엑스포 D-99... '국제행사' 추진

4월 15~21일까지 7일간 개최 '다소' 비롯 보성 차 역사 조명 수출상담회·품평대회 등 진행 K팝 콘서트, 국악한마당 등 마련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오는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 '2022 제10회 보성세계차EXPO'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이 함께 즐기며 건강해질 수 있는 '축제형 엑스포'를 통해 '보성차 제2의 부흥기'를 열겠다는 각오로 보성군은 국제행사 규모로 준비하고 있다.

2022 보성세계차EXPO는 고려시대 차를 만들어 국가에 공납했던 '다소'를 비롯하여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보성 차의 역사와 한반도 차(茶) 역사를 조명한다.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의 차 문화와 차 산업 뿐만 아니라 세계차 문화와 산업의 현주소를 체험해보는 시간과 함께 앞으로 우리 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전시관과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세계 차 문화 교류전, 수출 상담회, 세계 차 품평대회, 세계 티포럼, 대한민국 다향예술대전 등의 학술·문화 행사와 티 테라피, 차발 힐링 트래킹, 오감만족 티스탬프 팸리 등 보성다향대 축제와 보성세계차EXPO의 다양한 체험형 행사가 진행된다.

15일에는 보성 공설 운동장에서는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K-pop 빅 콘서트가 열린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이 참여하여 오랫동안 코로나19에 지친 사람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서편제보성소리축제에서는 전국관 소리 고수·경연대회, KBS국악한마당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4월 16일에는 보성공설운동장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진행된다.

보성읍 시가지를 행진하는 퍼펫 퍼레이드, 세계차EXPO 개막식, 체육 행사 등 다채로운 화합 한마당이 펼쳐진다.

보성은 드넓은 계단식 차밭, 가슴 시원한 평지형 차밭, 그리고 아름다운 울포해변 등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곳이다.

2022 보성세계차EXPO는 자연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보성다향대축제 행사로 티 테라피, 차발 힐링 트래킹, 오감만족 티스탬프 팸리 등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울포해변에서는 해양 녹차 치유

관광 체험행사와, 웰니스 건강·휴양 프로그램, 차박&캠핑, 울포해변 어린이 활어 잡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그 밖에도 다향보성전국장사씨름대회, 보성녹차마라톤, 전남우수 분재대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준비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현재 보성세계차 엑스포 TF팀을 구성해서 엑스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축제형 엑스포로 개최해 전 세계 차인이 즐기는 차문화 축제를 만들고 보성 차의 도약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신산업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겠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하여 비대면 온택트 EXPO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성(전남)=문성환 기자 m8527188@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여수시, 새해맞이 청결활동 페어구 등 쓰레기 2톤 수거

여수시 남면은 지난 5일 오전 동고지 해안가에서 민관 합동으로 새해맞이 청결활동을 추진했다.

이날 청결활동은 지역 봉사단체와 면사무소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페어구와 일반 쓰레기 2톤 가량을 수거했다.

김춘수 남면장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청결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청정 남면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전남)=김용환 기자 jiiacecom@

### 보성군 '보성물' 할인행사 127곳서 790여개 품목 판매

보성군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2월 4일까지 온라인 직거래장터 '보성물'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 품목 10%에서 최대 20% 이상 저렴하게 보성 농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다.

127개 업체, 790여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며, 설 명절을 맞아 농어가의 정성을 듬뿍 담은 '보성을 담다' 꾸러미 선물 세트도 판매할 예정이다. /보성(전남)=문성환 기자 m8527188@

### 나주시, 역사교과서 배포 역사학 등 전문가 17인 참여

나주시는 나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역사교과서 '한 권으로 보는 나주'를 발간·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역사교과서는 2021년 시(市) 승격 40주년에 맞춰 발간을 추진해왔다. 역사학·고고학·전근대사·근현대사·예술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7인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총 237페이지로 지역 명칭 이전의 선사시대(구석기~철기)와 고대 마한,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고려, 조선, 근·현대까지 총 5가지 테마로 나주의 시대상을 다룬다.

나주시민 역사교과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중·고교, 도서관, 문화시설 등에 배포했다. 시청 누리집 전자책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나주(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 신안 신장리 지역주민들 동트리 마을학교 공동체 결성

신안군 압해도 장감리 신장리 지역주민들은 압해 동초등학교 학부모 교사 학생들과 함께 동트리 마을학교 공동체(대표 강미라)를 결성했다.

'1004 동트리 마을학교 공동체'는 2021년 7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 갯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갯벌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이한 점은 전교생이 48명인 압해동초등학교(교장 이봉선) 학생들 대부분이 맨손어업 면허를 취득하여 이색적인 체험활동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신안군은 마을공동체와 유기적 관계망 구축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 여순사건 배경 영화 '동백' 국가기록원에 영구 보존

여수시, 영화제작 지원 추후 학술·공익 목적 활용

여수시 지원 하에 제작된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동백'이 국가기록원에 수집되어 후대에 계승된다.

국가기록원은 올해 '역사의 큰 파도'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이라는 큰 주제로 수집을 진행했다.

영화 '동백'은 민간인 피해 테마로 수집되어 추후 학술적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영화 '동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로배우 박근형과 주연배우 김보미, 정선일 등 다수의 배우들이 대거 참여해 여순사건 당시 아버지를 잃은 노인 황순철과 가해자의 딸 장연실의 세대를 이어온 악연을 풀기 위한 갈등

과 복수 그리고 화해와 용서를 담은 영화다.

지난해 4월 영등포에서 국회의원 초청 시사회를 열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든든한 문화콘텐츠적 지원군 역할을 했다. 지난해 6월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국내 첫 개봉하면서 여순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도를 증폭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순사건을 담은 영화 '동백'이 국가기록원의 중요 역사 콘텐츠로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여수시는 시정부에서 해야 할 여순사건 피해사실 조사, 기념공원과 같은 후속조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전남)=김용환 기자 jiiacecom@



함평군, 레드향 수확 한창

겨울 추위가 지속되는 요즘 전남 함평군에는 아열대 과수인 레드향 수확이 한창이다. 현재 함평군에는 나산면과 학교면 5개 농가에서 총 28,760㎡ 규모로 레드향을 재배하고 있다. 사진은 농가주자 레드향 수확하는 모습. /함평군

### 광주시, 소상공인 청년인건비 50% 지원

신규 채용시 6개월간 지급

광주광역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채용하는 청년 인건비의 50%를 6개월간 지원한다.

참여대상은 공고일(7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의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서비스업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광업·제조·건설·운수업 등이며, 지원 기간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7일부터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3층 소상공인지원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 곡성군, 문화재 등 오픈 API 5건 개방

지역향토지 등 데이터조회 서비스

곡성군이 문화재, 향토 정보 등과 관련된 오픈 API 5건을 개방했다고 밝혔다.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란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을 말한다.

쉽게 말해 식당에서 손님과 요리사를 각각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점원의 역할이 바로 API라고 할 수 있다.

곡성군은 곡성군사, 문화재, 유래지, 관광지, 지역향토지 데이터 조회 서비스 총 5건을 오픈 API로 개방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해당 키워드를 검색한 후 오픈 API 활용 신청을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곡성군은 지난해 6월 '곡성군 문화재 및 향토정보 DB 구축 및 개방'이라는 과제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 이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와 함께 오픈 API 개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데이터 전문가들을 통해 사전 교육을 받은 지역 청년 인턴 4명이 함께 실무에 참여해 디지털 분야 경력을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많은 곳에서 오픈 API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경제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데이터 발굴, 구축, 개방으로 기업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 화순군 건강증진사업, 복지부장관 표창

영양플러스사업 우수기관 선정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21년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화순군은 영양플러스사업 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영양플러스사업의 운영관리, 보충식품 공급과 관리, 영양 교육과 상담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화순군보건소는 코로나19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며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다양한 비대면 교육 등을 통해 영양 관리를 지원했다.

밴드 등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해 굿바이 코로나 손 씻기 챌린지, 아침밥 먹기 챌린지, 영양 퀴즈풀이 등 개별 맞춤 영양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월 2회 보충식품을 제공해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향상과 군민 건강증진에 앞장섰다. /화순(전남)=김태수 기자